



### 홈런 한방에 무너진 찬호

애리조나전 1.20이닝 1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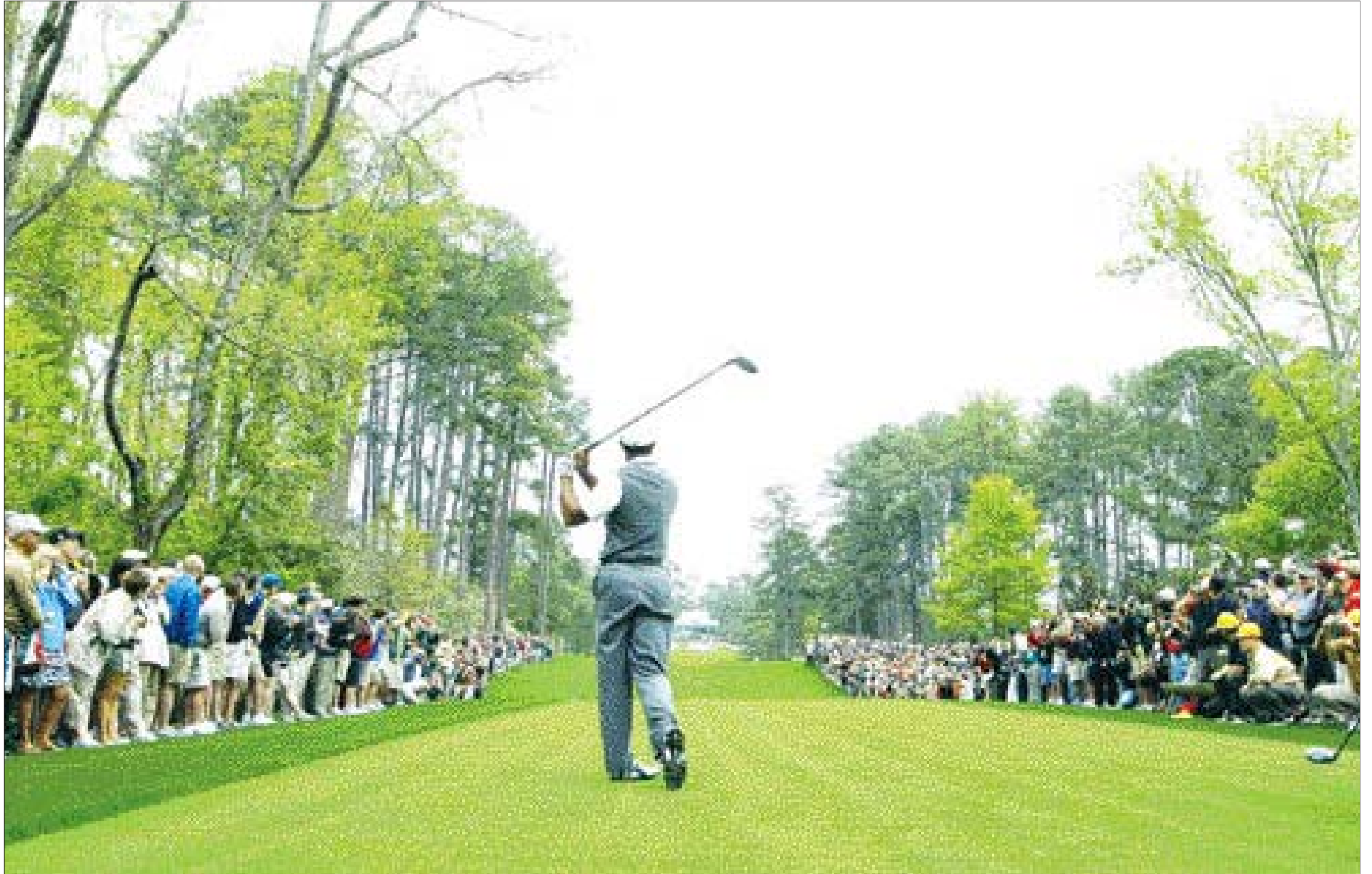
박찬호(35·LA 다저스)가 올시즌 처음으로 등판했지만 홈런 한방에 무너졌다.

박찬호는 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에 중간계투로 나왔지만 1%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안타 3개와 볼넷 한개로 1실점했다.

박찬호는 다저스가 1-4로 뒤지던 5회 말 선발 에스테반 로아이를 구원등판해 애리조나 투수 댄 허켄을 삼진으로 잡은 뒤 크리스 영과 에릭 번즈를 각각 좌익수 뜬공, 3루수 플라이로 깔끔하게 요리했다.

그러나 다저스가 공수교대 후 2점을 추격해 3-4까지 따라붙은 6회 들어 홈런 한방에 순식간에 흔들렸다.

박찬호는 올랜도 허드슨과 코너 잭슨을 각각 좌익수,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2사 뒤 오른손 타자 마크 레이놀즈에게 솔로홈런을 맞았다. 이후 스테판 드루, 저스틴 업튼에게 각각 중전안타와 2루타를 내주면서 2사 2, 3루에 몰렸고 크리스 스나이더를 고의사구로 거른 뒤 좌투수 조 바이렐로 교체됐다. 다저스는 3-9로 패했다.



타이거 우즈가 7일 미국 조지아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2008 마스터스 골프대회 연습라운드 7번 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李 타격 부진 스윙 폼 때문”

요미우리 수석코치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격 부진에 대해 소속팀 수석코치가 ‘스윙 폼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하라 하루키(59) 요미우리 수석코치는 “요즘 이승엽의 타격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약간 허리를 뒤로 뺀 채 스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에 이어 팀 2인자인 그는 “하지만 조금만 타이밍을 맞추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요미우리가 최근 이승엽의 타격 부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최근 타순 조정도 같은 맥락이다. 요미우리는 4일부터 이승엽을 5번으로 내리는 대신 알렉스 라미레스(34)에게 4번을 맡기고 있다.

이승엽은 3경기 연속 노 히트 부진에 빠진 끝에 타율도 0.176(34타수 6안타)까지 내려갔다. 이하라 수석코치는 “한동안 4번은 라미레스로 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전문도 회원권까지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저희 '룩펠러 회원권'은 상공회의소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모야레프초트타운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성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소가 되었습니다.
정회원 (062)351-0095

## KIA '魔의 8회'

‘마(魔)의 8회, 그 벽을 넘어라’
KIA타이거즈가 최근 삼성, 두산, 한화와의 8경기에서 4차례나 8회에 실점을 하면서 팬들 사이에 ‘마의 8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8회 실점을 기록한 4경기에서 KIA가 거둔 전적은 1승3패, 패배를 당한 3경기 모두 8회 실점이 원인이었다.

KIA는 지난달 29일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8회초까지 3-3으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승부는 8회말에 갈렸다. 8회 1사 1,2루 상황에서 선발 리마와 유동훈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좌완 양현종이 우전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3-4로 승부가 뒤집어졌고 KIA는 아쉽게 첫 승을 삼성에 내줬다.

삼성과의 2차전에서 선발 윤석민이 6이닝동안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1점차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그러나 8회말 양현종이 2루타와 볼넷을 내준 뒤 급히

이대진이 처음 마운드에 오른 지난 6일 한화와의 경기 모양새도 비슷했다. 0-1로 뒤지던 8회 말 구원으로 나선 유동훈이 1사 1,2루에서 이범호에게 3점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의 흐름이 넘어갔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최희섭이 1사에서 안타로 출루하면서 승부 뒤집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어진 삼진 2개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3경기서 팀 패배 '결정타'
8경기 중 4경기 '8회 실점'

지난 8경기에서 KIA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2.51이지만, 볼넷진은 6.32이나 된다. 볼넷진의 뒷심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시범경기에서 예전의 위력을 보여주며 KIA허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동훈의 평균자책점은 10.13, 선발과 볼넷을 오갔던 양현종은 12.2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좌완 침·임준혁·문현정도 9.00, 5.40, 10.13의 높은 평균자책점으로 볼넷이 불안하다.
그러나 다행인 마운드에 오른 마무리 한기주가 박석민에게 2타점짜리 좌중간 안타를 맞으며 0-3으로 완봉패를 당했다.
마운드의 뒷심 부족이 두고두고 아쉬운 2연패였다.
이대진이 처음 마운드에 오른 지난 6일 한화와의 경기 모양새도 비슷했다.
0-1로 뒤지던 8회 말 구원으로 나선 유동훈이 1사 1,2루에서 이범호에게 3점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의 흐름이 넘어갔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최희섭이 1사에서 안타로 출루하면서 승부 뒤집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어진 삼진 2개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 최경주 첫 메이저 챔프 도전

골프 명인(名人)의 반열에 오른 93명의 스타들이 '유리알 그린'에서 챔피언을 가릴 제72회 마스터스대회가 10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7천445야드)에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 PGA 마스터스 내일 개막

### 우즈 그랜드슬램 시동 기대

### 코스 개조·강풍 승부 변수

올해 마스터스대회 관련 포인트를 정리했다.

▲우즈, 그랜드슬램 첫 걸음 때나= 우즈는 '그랜드슬램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볼 여려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작년 8월부터 11개 대회에 출전해 한차례 준우승과 한차례 5위를 빼고 우승컵 9개를 수직했다. 중간에 7개 대회 연속 우승도 있었다. 샷은 물론 정신력과 승부 근성에서 그를 대적할 적수는 사실상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잭 니클러스, 아놀드 파머, 게이 플레이어, 톱 앳슨 등 '살아있는 전설' 4명은 "타이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즈 대항마 없나= 마스터스는 세계랭킹 50위 이내, 최근 5년 동안 메이저대회 챔피언, 올해 PGA 투어 대회 우승자 등 쟁쟁한 선수들이 나서기에 출전 선수 전원이 우승 후보다.

우즈의 독주를 견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2004년과 2006년에 이 대회를 제패한 미켈슨은 꼽고 있다.

우즈의 8연승을 저지한 '신예' 오길비도 주목받고 있고, 최근 아들 벤이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아니 엘스(남아공)가 두차례 준우승의 한풀이에 나선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2000년 우승자 비제이 싱(인도)도 마지막 불꽃을 이곳에서 태우겠다는 다짐이다. ▲북빙 최경주, 아시아 최초 메이저 챔피언= '완도산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도 무시하지 못할 우승 후보이다.

세계랭킹이 6위로 올라선 최경주는 레드브룩스가 예상한 우승 확률 상위 10명 가운데 우즈, 미켈슨, 오길비, 싱, 엘스, 해링턴, 그리고 레티프 구센(남아공)에 이어 스코트와 함께 공동 8위에 올라 있다.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첫 무대는

마스터스가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최경주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을 유난히 좋아 한다.

질긴 러프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는 것도 마음에 들고 장기간 페이드샷을 잘 받아주는 코스 레이아웃도 입맛에 꼭 맞는다고 한다. 다른 선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유리알 그린도 최경주는 '본래대로 가는 정직한 라인'이라면서 좋다고 한다.

▲코스개조, 변덕스런 날씨 승부좌우 할까=마스터스를 개최하는 오거스타내셔널은 한동안 장타자를 견제하기 위해 코스를 늘리는데 전념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코스 길이를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2006년부터 코스 개조는 중단됐다. 올해 대회를 앞두고 1, 7, 9, 11번홀을 손봤지만 관람 편의에 주안점을 둔 공사였다.

300야드를 넘는 장타 앞에 무력해지는 듯 하던 오거스타내셔널은 지난해 강한 바람과 추위가 엄습하자 브리티시오픈이 열리는 링크스코스 못지 않은 횡포를 부렸다.

유리알 그린에 물에 젖어 부드러워지면서 우승 스코어도 두자리수 언더파가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한편 이번 마스터스에는 양현종(중국), 지브 밀카 싱(인도), 막생 프라야드(태국) 등 아시아프로골프투어의 간판 선수 3명이 초청을 받았다.

골프소식
함평다이너스티 4월 '허브축제' 실시
내장객에게 로즈마리 허브화분을 증정한다.
또한 클럽하우스 입구와 코스 곳곳에 허브화분을 식재했고, 사우나에는 허브탕을 운영하며 레스토랑과 락커에 허브향을 설치했으며 카트에 허브화분을 비치했다.
이준희 함평다이너스티CC 대표는 "허브는 심신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를 활성화시켜 집중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푸른 양산디와 함께 건강까지 챙기는 즐거운 라운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